

'상여소리'로 풀어낸 삶과 죽음의 서사

상여(喪輿)는 망자(亡者)의 시신을 묘지까지 나르는 가마와 비슷하게 생긴 도구다.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어깨에 상여를 멘다. '상여소리'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를 뜻한다. 고인을 보내는 슬픔과 망자를 추억하는 그리움을 달래면서도 상여꾼들의 고된 노동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기도 한다. 이러한 '상여소리'는 우리 음악이 품은 섬세한 감정과 표현의 다양성이 녹아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도 평가받는다.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마지막 축제'. 지역별 상여소리를 한데 엮은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국악원 순회공연 '꽃신 신고 뿔뿔'이 오는 13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전악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민속악단이 '상여소리'를 무대 예술화한 것으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높은 평을 받아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지숙 민속악단 예술감독의 첫 정기공연 작품에 집중된 무용단 예술감독 안무를 더해 순회공연 형식에 맞게 재구성했다.

연출은 소리극 '까막눈의 왕'을 연출했던 정호봉 중앙대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삶의 끝에서 마주하는 평안'을 기억하는 잔치로 이번 공연을 꾸며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서도, 경기, 남도 지역의 상여소리를 비롯해 죽음을 다룬 노래와 음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 다른 상여소리를 통해 음악적으로 다양한 정서를 담아냈으며 민요 잡가, 판소리, 무속음악 등을 한데 엮고 민속음악에 담긴 삶



국립국악원 '꽃신 신고 뿔뿔' 공연 모습

섬세한 감성 담은 서도·경기·남도 상여소리 '한자리' '제전과 상구소리'·'산염불' 등 지역별 민요·판소리도

과 죽음의 조각을 함께 이어 작품을 완성했다. 슬픔을 다 내려놓은 듯 처연하고 담담한 북녘의 소리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서도 상여소리'가 이날 무대의 서막을 장식한다.

이어 삶의 인연과 그로 인해 얽히는 다양한 감정을 노래하는 '경기 상여소리'가 그 뒤를 잇는다.

마지막 무대는 '남도 상여소리'다. 미련까지 뿔뿔 날려 보내는 신명과 다채로운 장단이 어우러져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지역별 상여소리 외에도 제전과 상구소리, 산염불, 이별가,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과

지전춤,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 등 삶의 다양한 순간을 노래하는 지역별 민요, 판소리 무대도 함께 선보인다.

유지숙 예술감독은 "공연의 노랫말을 찬찬히 되새겨보며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라는 옛사람들의 통찰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란다"며 "여러 지역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가 관객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 (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한윤정작 '플라스틱 풍경 - 이면의 세계' 스틸컷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너머의 세계

G.MAP, 내달 4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다음달 4일까지 G.MAP 제4전시실에서 실감콘텐츠전 '너머의 세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몰입형 전시공간에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실감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참여작가는 장 사운타오(중국)와 한윤정(한국)이다.

전시 주제인 '너머의 세계'는 인류세와 맞물려 있는 시대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너머'의 의미는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사물의 저쪽 혹은 공간이 아닌 예술가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및 예술적 발언을 뜻한다.

참여작가들은 동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 속 개인의 위기, 정신문화의 결핍, 환경 문제 등 삶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쟁점들을 미디어아트 형식을 빌어 서술한다.

장 사운타오는 주제작 '사카'를 통해 오늘날의 물질세계 속 영적 세계의 붕괴를 이야기한다. 2006년부터 5년간 티

벳 불교를 더듬으며 완성한 이번 작품은 인간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그 영혼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기를 바라며 제작됐다. 서사적인 이미지와 사운드가 중심인 작품으로 영성을 비롯한 예술세계, 영적 세계의 신비로움이 드러난다.

한윤정은 공학자 김성룡과의 협업으로 '플라스틱 풍경 - 이면의 세계'를 제작, 선보인다. 지난 수년간 지속해온 기후변화 데이터 예술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경각심을 알리는 작품이다. 기후변화 현실을 직시하고 플라스틱으로 파괴된 미래세계를 경고한다.

이경호 G.MAP 센터장은 "환경문제 등 현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잠시나마 우리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가능성이란 화두에 집중,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진단하는 내용성 있는 전시 및 프로그램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서영기·유지원·표인부 '3人3色'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 9월13일까지 '2024 올해의 작가전'

'2024 올해의 작가 - 서영기·유지원·표인부' 전시가 오는 9월13일까지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 1,2,3 전시실에서 열린다.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은 2018년부터 조선대 출신의 역량있는 작가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의 작가' 전시를 격년제로 열어오고 있다.

올해 4화제를 맞이한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서영기·유지원·표인부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먼저 서영기 작가는 단일 이미지를 가진 회화에 서사를 부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작품 구성배열로 이미지들의 맥락을 형성한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소'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작품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시에서는 지난해 제작한 '부분의 전체(Whole of part)', '부분의 부분(part of part)' 등 3개 작품과 '부분의 이면(the other side of part)', '잃어버린 방향(lost direction)'까지 총 5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왼쪽부터 서영기작 '부분의 부분', 유지원작 '4인가족', 표인부작 '바람의 기억'

유지원 작가는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 아래 '배제된' 혹은 '잊혀진' 개념, 공간, 존재 또는 기억과 역사의 흔적들을 소재로 조각·설치·영상 등 복합매체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식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공간 안에서 반복되

는 사회 문화적 의미의 생성과 소멸을 건축적 이미지를 차용해 표현하거나 건축 재료를 이용해 구성함으로써 재정의, 맥락화하는 작업 중이다. 그의 작품 중 'Home', '4인가족 I', 'Trace-Collecto', '예술가의 여정', '하우스 키트 I' 5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중 'Trace-Collecto'와 '예술가의 여정'은 비디오 작품으로 그가 연출한 퍼포먼스 작품이다.

표인부 작가는 '바람의 기억' 2개 작품과 '바람의 기억-인민, 봄, 새벽' 5개 작품을 선보인다. 모두 캔버스 위 실과 한지를 붙여 만든 작품이다. 작가는 잘게 잘린 종이를 채색해 붙이는 행위를 통해 바람에 각인된 기억을 표현한다. 개별적 형태로 붙여지는 종이는 중첩의 형태로 수많은 층위의 겹을 만들어내며, 기억의 복합체로 인식된다. 이때 '바람'은 '기억'을 상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바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기억'을 연상하는 매체로 읽히듯이, 바람과 기억은 서로를 상징화하는 요소로서 서로를 수식한다.

한편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최명진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